

도 / 서 / 관 / 탐 / 방



공공도서관의 중요한 임무,
전문맹퇴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서천도서관



용산역에서 장항선 열차를 타고 4시간 정도 지나 도착한 곳은 서천역이었다. 서천은 예전 여행길에 군산을 지나면서 잠시 스쳐간 적이 있었다. 그때 참 맑고 깨끗한 인상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유난히 덜컹대는 기차에 앉아 이런저런 생각을 하니 슬슬 허리가 아파오기 시작했건만 시계를 보니 3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1시간 정도 더 가야 서천역에 도착이다. 생각보다 훨씬 먼 거리였다. 발과 발 사이, 길 한가운데로 기차가 지나가는 느낌이 여느 지방 출장때 하고는 사뭇 분위기가 다르다.

도서관탐방을 시작한 이후로 여러지역으로 도서관을 찾아다녔지만 사실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곳의 농산어촌 공공도서관 탐방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참을 달려간 후 도착한 고즈넉한 분위기의 서천역에는 정성택 관장과 김영심 사서가 벌써 우리를 마중

나와 있었다. 낯선 곳에서 우리를 환영하는 분들을 뵈니 안심이 되기도 하고 반가웠다.

서천도서관은 서천역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었다. 소담한 정원에는 철쭉들이 아름다운 색을 뽐내고 있었고 정원 한 쪽에는 자그마한 연못이 있어 운치가 있었다.

도서관 외관은 우리가 상상했던 대로 아담한 학교 같다. 우선 관장실에서 도서관에 관한 소소한 얘기들을 먼저 나누었다.

서천도서관의 환경

충청남도 서천군은 2개읍, 11개면, 인구 65,000여명의 작은 농산어촌지역이다. 현재 충청남도에는 교육청산하에는 공공도서관이 16곳, 평생학습관으로 명칭 변경된 도서관이 2곳(서부평생학습관[서산도서관], 남부평생학습관[논산도서관]), 학생회관 문

헌정보관(변경전 천안도서관)으로 명칭 변경된 곳이 1곳, 평생교육원 문헌정보부(천안북천)로 신설된 곳이 1곳으로 총 20곳이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지자체 산하로는 24개관이 있다. 서천군에는 교육청 산하 서천도서관과 서천문화원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장항공공도서관이 있다.

서천군에는 마을회관, 주민자치센터, 서천문화원, 서천군민회관, 농업기술센터가 있지만 도시에 비하면 문화공간 및 복지시설이 많이 부족한 형편이다. 이런 문화시설 중 서천도서관은 1987년 9월 30일 개관 이래 공공도서관으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도서관 전경
 정성택 관장



현재 서천도서관 주변에는 서천초등학교, 서천중학교, 서천여자중학교, 서림여자중학교, 서천고등학교, 서천여자정보고등학교, 서천여자고등학교 총 7개 학교가 있고 서천읍내에 위치해 있어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접근성이 좋은 편이었다.

서천도서관의 개요

서천도서관은 지하1층, 지상2층 건물에 대지 2,109m², 연건평 866.25m² 규모로 2007년 5월 현재 총 69,202점(아동도서 15,173권, 일반도서 46,210권, 참고도서 2,074권, 시청각자료 1,149종 5,745점)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도서관에는 사서직 관장 아래 사서직 1명, 행정직 1명, 기능직 3명이 근무하고 있다. 문헌정보서비스와 평생교육업무 전반은 주로 사서직 1명이 담당하고 있다. 도서관 운영위원회는 지역 내 인사, 기자, 퇴직교원, 도서관에 관심있는 주민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해야할 때 모임을 갖는다.

도서관 1층에는 열람실, 평생학습실, 신문열람대, 잡지코너가 있으며 2층에는 디지털자료실과 종합자료실이 있다. 디지털자료실에는 시청각자료 관람, 정보(원문)검색, 노트북 이용, 연속간행물 코너가 있다. 또한 좁은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디지털자료실의 단체관람 코너는 영화 관람자가 없을 때 아이와 엄마가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독서사랑방'으로 꾸며 활용 가능토록 했다. 또한 종합자료실에는 이용자들이 자신이 읽은 책을 간단히 소개하는 '독서게시판'이 설치되어 있었다.

서천도서관은 농산어촌 공공도서관이다보니 대도시처럼 이용자가 많지는 않지만 주 이용자는 유아와 어린이들 그리고 노인 계층이다. 요즘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성인과 노인들로 붐비고 있다. 또한 인근 전라북도 군산에서도 서천도서관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오기도 한다.

- 1층 출입구
- 2층 디지털자료실
- 2층 독서사랑방에서 유아를 대상으로 동화구연을 하고 있는 모습



서천도서관의 자랑과 프로그램

서천도서관은 2000년 서천지역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평생 교육 관련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그 중 특징적인 몇 가지를 소개한다.

서천지역은 지역의 특성상 40세 이상의 인구 중 글을 읽지 못해 생활에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25.4%(서천군 통계)에 이른다. 이에 서천도서관은 이들의 실질적 도서관 이용을 돕기 위해서는 문해교육이 필수라고 여기고 어르신들의 문해교육에 남다른 정성을 기울였다. 그러나 처음에는 글을 모른다는 것에 대한 수치심 때문에 참여율이 매우 저조했었다. 이후 문해교육의 필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정성택 관장과 김영심 사서를 비롯해 직원들이 일일이 가정마다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물으면서 문해교육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동네에 현수막을 걸고, 교회와 성당에 홍보물을 배포해 관심을 유도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현재까지 200여명 정도가 문해교육을 수료했다. 문해교육 수료자들에게는 독서습관 형성을 위한 단계별 프로그램을 준비해 시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어르신 컴퓨터 교육, 어르신 교양강좌 등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등 성인층과 고령자층을 도서관으로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

지역 내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도 꾸준히 운영하고 있다. (사)한국지체장애인충남협회 서천군지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우 컴퓨터 교육은 개인별 지도를 하고 있으며 이들이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해 다양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의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논술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교육환경이 열악한 농촌지역의 학생들에게 논리력을 키워주고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평생학습과 공교육 살리기의 바람을 도서관에서 긍정적으로 활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올 2월, 인근에 있는 서천중학교와는 순회문고 협약을 맺어 학교에 책을 직접 배달하고 회수해 오고 있으며, 지역 내 학교도서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려는 학교를 대상으로 시설 및 자료에 관한 컨설팅을 해 주기도 한다.

계층별로 다양한 독서회를 조직해 운영하고 있지만 특히 1993년 결성된 주부독서회는 매월 1회 모임을 통해 활발한 독서토론을 하며 독서감상문 및 기타 발표작품을 묶어 연말에 문집 『세모시』를 출간하고 있다.



문해교육
 청소년 논술교실

마지막으로 서천도서관 홈페이지(<http://www.sc-lib.or.kr>)에서는 자료검색, 신착자료, 도서대출베스트, 추천도서, e-book서비스, 각종 도서관 행사 안내, 도서관장과의 대화, 군내 유관기관 평생교육프로그램 안내, 동아리방, 서천문화관광 안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농산어촌 공공도서관 이러서 어렵지만 더 보람있는 일

대도시 공공도서관에 비해 시설, 인력 등이 열악하고, 지역 내 도서관 수도 적어 지역주민의 요구를 모두 충족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지역의 특성상 노인계층이 다수이기 때문에 이들을 도서관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대도시 공공도서관과는 차별된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올해로 사서직 3년째에 접어들고 있는 김영심 사서는 이용자가 원하는 것을 제때 해결해 주어 고맙다는 인사를 건넬 때, 농촌 사람들의 소박하고 훈훈한 인심이 전해질 때, 문해교육에 참여하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한글을 깨우치고 책을 터득해 기뻐할 때 큰 보람과 긍지를 느낀다고 말한다.

아쉬운 점으로는 관장직을 제외하고는 실무인력 중에는 사서가 1명이라 문헌정보서비스와 평생교육 업무를 겸해야 하고 직원들도 격일·격주 야간근무를 하는 등 업무 과중으로 늘 시간에 쫓겨 여유로운 마음으로 이용자를 만날 수 없기에 진정한 참고봉사를 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이야기했다.

향후 운영계획

서천도서관은 공공도서관으로 제 역할을 다지기 위해 지역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도서관을 홍보하고 다양한 장서를 구비하며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노



□ 김영심 사서
■ 자료실 풍경



인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노년에 찾아올 수 있는 소외감, 우울, 심리적 불안감을 덜어주어 행복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에 주력하고 있으며 현재 군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주민대상 서비스, 다문화가정에 대한 서비스 등도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운영중인 남부지역(서천, 부여, 금산, 논산) 도서관 네트워크 협의회를 더욱 활성화해 지역간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 공유 및 인적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정성택 관장은 향후 지역자료 특성화 등의 사업도 계획하고 있으나 현재는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일들을 잘 정비해서 이용자들이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고 효율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나오면서

이번에 처음 농산어촌 공공도서관을 방문하면서 ‘정말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곳은 바로 이런 곳이구나’ 라고 절실히 느꼈다.

물론 대도시에 있는 도서관들 또한 나름대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은 잘 알지만 농산어촌 공공도서관은 이용계층이나 주민들이 원하는 기본적인 욕구가 대도시의 공공도서관들과는 확연하게 차별되었다. 서천군만 해도 서천군내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이라고는 서천도서관과 장항공공도서관 두 군데 뿐인데다가 타도서관에 비해 어린이와 노인계층의 이용이 많은 특성을 지녔다. 그동안 공공도서관에서 많은 관심을 두지 못했던 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가 농산어촌 공공도서관에서는 필수적인 서비스인 셈이다. 그러나 그에 비해 자원은 한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농산어촌 공공도서관 사서들은 마을주민들에게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다가가 그들의 벗이 되어주어야 한다. 또 IFLA/유네스코 공공도서관 선언에서 전문맹자퇴치가 공공도서관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라 규정되었듯이 우리 농산어촌 공공도서관에서도 전문맹자퇴치를 위한 문해교육이 필수적인 서비스가 되어야 함은 자명한 사실임을 깨닫게 해주었다.

농산어촌 공공도서관은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지역 내 문화사랑방으로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이들의 노력이 결실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들 도서관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지원이 꾸준히 필요하다. (글 : 심효정, 사진 : 심효정, 최인경)